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소식지

교육목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 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성취능력을 교육목표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 능력을 확립한다.
-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자기개발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 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TOGETHER
TOMORROW.
EWA

2017학년도 전기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2018년 2월 9일(금) 11:00 김옥길홀

이화여자대학교



02 대학소식

- 2017학년도 전기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 2018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017학년도 전기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축하 파티

03 학생소식

- 2017 영어에세이 대회 수상자
- 예과생들이 궁금해 하는 본과 생활
- 의과대학 페미니즘 동아리 WTH
- 제10회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공동교육' 최우수 우수 포스터상 수상
- 2018년도 상반기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05 기획기사

- 의과대학 교육인프라 구축기금

06 교수소식

- 본교 교원 보직발령
- 의과대학 자체 교원 보직발령
- 교수 수상 및 업적

07 동창소식

- 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송년회

08 행사알림

- White Coat Ceremony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체육대회
- 졸업 50주년(17회 졸업생) 모교방문의날
- 졸업 30주년(37회 졸업생) 모교방문의날

대학소식

2017학년도 전기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2018년 2월 9일 금요일 11시에 의학과 A동 김옥길홀에서 '2017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학위 수여식'이 열렸다. 박혜숙 교무부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 행사에는 정윤재 교목실장, 이지희 의전원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이남희 동창회장, 김미영 동창회총무이사, 의학전문대학원 주요 보직자 및 교수진 등 주요 내외빈과 가족이 참석하여 의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을 축하했다.

이지희 의전원장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라며 졸업생들에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역할뿐 아니라 창의적 연구원으로서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여 국민 보건 의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학자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의학의 길을

걸거나 보건의료의 다양한 분야를 가더라도 같은 의학의 길을 가는 선배의사로서 잊지 말아야 할 의료인의 마음가짐에 대해 연설하였다.

이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졸업생과 동기들을 위해 봉사를 한 졸업생에게 시상 및 학위기전달식이 이어졌으며, 졸업생 대표 김채아 학생의 답사와 대한의사협회장상을 수상한 박선희 학생의 세계의사윤리선언이 있었다. 수석 졸업의 영예는 김채아 학생에게 돌아갔으며, △대한의사협회장상=박선희 △대한의학회장상=서예윤 △KAMC이사장상=박민영 △한국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회장상=김아령 △동창회장상=이자영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의예과 2학년 최은영 기자〉

2018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8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2월 12일(월) ~ 13일(화) 1박 2일 일정으로 본교 및 크라운해태연수원에서 열렸다. 당해년도 의예과 신입생은 총 53명이며, 이중 47명이 해당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였다. 이지희 학장, 임원정 학생부학장, 이화영 의예과장 및 여러 교수가 참석하여 이화여대 의과대학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학교소개 및 캠퍼스투어 등의 오전 프로그램에 이어, 크라운해태연수원으로 이동 후 오후에는 의예과 재학생이 주도하는 동아리 및 학교생활 소개 후 선후배, 동기 간 정을 돈독히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7학년도 전기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축하 파티

2018년 2월 9일 금요일 12시 30분에 의학관 A동 김옥길홀에서 졸업 축하 파티가 개최되었고 유병아, 전보경 학생이 사회를 맡았다.

이자영(의전원 4학년 과대표)는 교수님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이어서 졸업생들의 스승의 은혜 합창 및 진행 후 황혜정 학생이 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후 졸업생들이 부모님께 바치는 어머니의 마음 합창이 이어졌으며, 이지희 의전원장의 축사와 김채아 학생의 답사가 있었다. 또한 졸업하는 선배들을 위해 50대 학생회 그린나래의 글 낭독이 있었는데, 이는 졸업식을 더 특별하게 장식해주었다. 졸업식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식과 졸업생들의 지난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에 상영되어 4년이라는 시간의 가치와 추억에 대해 회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었다. 동영상에 이어 졸업생 한명씩 무대로 올라와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



학생소식



갯지요'를 합창했으며, 다재다능한 졸업생들의 악기연주가 함께 진행되었다. 모든 공연이 마무리된 순간, 과대표였던 이자영 학생이 올라와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의예과 2학년 최은영 기자〉

2017 영어에세이 대회 수상자

■ 2017영어에세이 대회 수상작 주제

WHO can also be said as Women's Health Outreach
Disparity & Inequality in health care service
Future Medicine in the Era of A.I.(Artificial Intelligence)

수상	이름
금상	남우연
은상	김소연
동상	강민지
동상	이서연

예과생들이 궁금해 하는 본과 생활

의학과 2학년 본과 2학년 김수빈, 남우연 학생 인터뷰



2월 12일, 의예과 기자단 방윤지, 최은영 학생은 본과 2학년에 재학중인 김수빈, 남우연 학생을 만나 '예과생들이 궁금해 하는 본과 생활'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본과의 수업은 수업시간, 방식에 있어 예과와 어떻게 다른가요?

A 김수빈 먼저 수업시간이 달라져요. 예과때는 한교시가 75분이지만 본과에서는 50분입니다. 쉬는 시간은 10분이고요. 고등학교처럼 시간표가 짜여 나오고 대부분의 수업은 따로 분반없이 한 학년의 학생들이 모두 한반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A 남우연 수업방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많은 내용을 배우다 보니 토론

등의 활동보다는 교수님의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수업도 있어요. 한교시의 강의안에 양도 많고, 농축된 내용을 배우다 보니 좀 더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이 예과때의 수업과 다른 점입니다.

Q 본과에서의 시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남우연 1학년 1학기 때는 거의 매주 월요일에 시험을 보는 형식이었고, 2학기 때는 중간고사 두 번, 기말고사 한 번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사람마다 선호하는 양상이 다양해요.

A 김수빈 예과 때는 서술식, 객관식, 보고서 대체 시험 등 시험 유형이 다양했다면, 본과 때는 객관식이나 단답형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는 과목도 있었어요.

Q 본과 학생들은 공부는 주로 어디서 하나요?

A 남우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집, 학교, 카페를 다양하게 오가면서 공부하는 편이에요. 밤에 학교 강의실에 가면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이 있어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A 김수빈 학교내에 강의실 말고도 따로 자습실이 있어요. 시험기간에는 밤새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Q 예과 때는 신촌에 있는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본과때는 목동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A 남우연 이대 앞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식당들이 있고 디저트류도 많아서 맛집 탐방하는 재미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목동은 그에 비해 종류가 적어서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아무래도 목동에는 의학과만 있다 보니 다른 과 학생들과 교류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A 김수빈 저희가 입학했을 때는 의과대학으로 전환된 첫해라 신촌에 있는 캠퍼스에는 저희 학년만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들과 친해지기 어렵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목동에 오니 선배님들과 친해지게 되고, 선배님들께서 이끌어 주셔서 배우는게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Q 본과 생활 중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A 남우연 물론 공부할 양이 많아지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힘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년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하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 나 자신을 점점 믿게 돼서 이제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어요. 너무

학생소식



완벽하려 하거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A 김수빈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동의할것 같아요. 저도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 했어요.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불안함 때문에 오히려 집중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두가 비슷한 상황이니까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본과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나요? 본과 생활 중에 활력소가 있다면?

A 남우연 동기들이 정말 큰 힘이 되어 줘요. 모두 같은 상황이다 보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 때 이대 신촌 캠퍼스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다른 과 친구들을 만나며 다양한 얘기를 듣고 서로 고민을 해소해주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A 김수빈 저도 역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기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본과에서는 혼자 공부하려고 하기보다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게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예과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A 김수빈 본과 들어오기 전에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좋습니다. 본과 때는 아무래도 예과 때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크므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신만의 취미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A 남우연 예과 때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두개 정도 정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볼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중앙 동아리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는 경험도 좋습니다. 놓치기 가까운 시기이니 꼭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의예과 2학년 방윤지, 최은영 기자〉

동아리 탐방

의과대학 페미니즘 동아리 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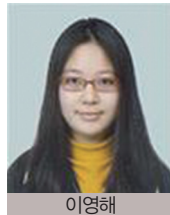
‘WTH’는 Women Think Hard의 약자로, 이화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지도교수 : 직업환경의학교실 정최경희 교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2017년 하반기에 만들어져 현재 35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의과대학과 보건의로계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WTH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모여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운영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기 중 주요 활동은 목동 의학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요일 점심 모임과 사물함을 사용하여 만든 페미니즘 도서관 운영이다. 수요일 점심 모임에서는 현 사회에서 대두되는 페미니즘을 비롯한 인권에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며, WTH 회원들은 페미니즘 도서관에서 무료로 페미니즘 도서를 대여할 수 있다. 방학 중에는 소모임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굿즈 제작, 훌라티, 독서모임, 세미나 등의 소모임들이 있다. 동아리 활동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WTH의 첫 번째 세미나가 2월 10일 이화여대 ECC에서 진행되었다. 앞으로의 성장과 더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

〈의전원 2학년 박조은 기자〉

학생수상 기사문

‘제10회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공동교육’ 최우수·우수 포스터상 수상



이영해



이지윤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M.D.-Ph.D) 과정생 이지윤 학생(지도교수 권기환)과 이영해 학생(지도교수 박주원)은 지난 2월 1,2일간 개최된 ‘제10회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공동교육

워크숍’에서 각각 최우수 포스터상과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의과학자 육성지원사업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여 의과학 및 생명과학 분야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임상경험과 연구력을 겸비한 신진 의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매년 공동교육을 실시하여 의과학의 최신 지견 및 전망을 소개하고 학생간의 상호발전기회를 도모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총 10개의 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참여, 다양한 강연과 우수한 연구를 한 학생들의 포스터 시상을 진행하였다. 이지윤 학생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고, 항상 지지해주시는 권기환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실 구성원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연구에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아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상호발전에 이바지하는 의과학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영해 학생은 “학생으로서 매년 의과학자 육성지원사업 워크숍을 통해 꿈을 꾸고 이를 이루기 위한 길을 그려왔다. 올해에는 포스터 발표를 통해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 많은 좋은 조언들을 받았는데, 뜻하지 않은 수상까지 하게 되어 영광이다. 의과학자로서 훌륭한 귀감이 되어주시는 박주원 교수님의 지도와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연구실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8년도 상반기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지급 대상자 선정

의과학과 생리학전공 석사과정생 정지혜 (지도교수 이지희)가 대한의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지원 사

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한의학회에서는 기초의학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매년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심사 평가를 거쳐 참가지역별 참가여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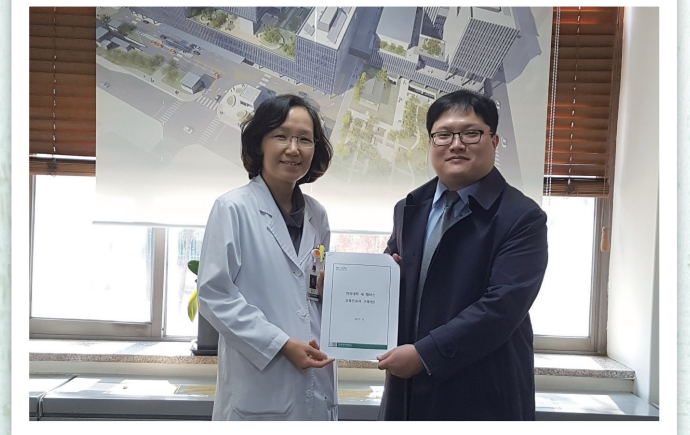


의과대학 교육인프라 구축기금



발전기금 후원 신청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2018년 완공되는 강서구 마곡지구의 의과대학 새 캠퍼스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새 캠퍼스에는 “가독교적 진선미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 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이라는 의과대학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의학 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것입니다. 세계 의학 교육을 선도하게 될 최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은 ‘의과대학 새 캠퍼스 교육인프라 기금’ 신설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제 22~23대 학장을 역임한 김경호 전 학장은 2014년 8월 취임 이후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모금에 박차를 가해 2017년 7월 말까지 19억 9천여만원의 의과대학 발전기금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새 캠퍼스에 ‘의과대학 새 캠퍼스 교육인프라 기금’을 신설하고 제 1호 기부자로 박혜숙 교무부학장과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의과대학 새 캠퍼스에는 강의 녹화가 가능한 최첨단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쌍방향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OSCE/CPX 룸, 문제바탕 학습 지원을 위한 소규모 세미나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춘 개별 태블릿 기반 실습 및 평가 지원 설비, 화상 교육 및 해외 교류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실, 최첨단의 의학도서관 및 최신식 의과대학 전용 기숙사를



구축기금전달자: 구축기금전달자 조민선 교수(병리학 교실), 김민석 교수(약리학 교실)

포함한 최고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시설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과대학은 세계 여성의학학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문 의과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여성 인재 양성과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문 의과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의과대학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의과대학 새 캠퍼스 교육인프라 기금’ 및 ‘의과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졸업생, 교수님, 그리고 학부모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의과대학 교육인프라 구축 기금 약정현황 — 2018년 2월 19일 기준	회원명	약정금액(실제)	회원명	약정금액(실제)	회원명	약정금액(실제)	회원명	약정금액(실제)
	공경애	10,000,000	박주원	10,000,000	김민석	10,000,000	최윤희	10,000,000
	곽현정	10,000,000	박혜숙	10,000,000	김희진	100,000	최지하	10,000,000
	김경호	10,000,000	양훈진	10,000,000	조민선	10,000,000		
	김희선	10,000,000	우소연	10,000,000	조인호	5,000,000		
	박은미	20,000,000	이지희	10,000,000	임재향	10,000,000		

교수소식

본교 교원 보직발령(2018. 3. 6 자)

보직명	임 명	
	성 명	소 속
의무부총장	문병인	외과학
의료원장		
목동병원장	한종인	마취통증의학

본교 교원 보직발령 (2018. 2. 1 자)

보직명	임 명	
	성 명	소 속
의무산학 부단장	류동열	내과학
의학전문대학원 기획부장	정순섭	외과학
의과대학 기획부장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부장	조도상	신경외과학
의과대학 의학교육부장		
의학전문대학원 정보관리부장	변성완	이비인후과학
의과대학 정보관리부장		
해부학교실 주임교수	한기환	해부학
미생물학교실 주임교수	임재향	미생물학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	공경애	예방의학
분자유과학교실 주임교수	김희선	분자유과학
소아과학교실 주임교수	김혜순	소아과학
비뇨기과학교실 주임교수	윤하나	비뇨기과학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	김규보	방사선종양학
직업환경의학학교실 주임교수	하은희	직업환경의학
의공학교실 주임교수	이레나	의공학

의과대학 자체 교원 보직발령 (2018.2.1자)

보직명	임 명	
	성 명	소 속
교무차장	박주원	생화학
학생차장	최지하	약리학
의학교육차장	김정아	의학교육학
의학교육차장	이희성	외과학
정보관리차장	김윤진	마취통증의학
정보관리차장	김범산	핵의학
이화의학시뮬레이션(EMSC)센터장	한재진	흉부외과학

교수수상 및 업적

내과학 박준범 교수, 예방의학 공경애 교수팀
'고혈압과 당뇨병 전단계 환자에서 심방세동의 위험성' 에 관한 연구 발표



내과학 박준범 교수, 예방의학교실 공경애 교수팀은 정상체형을 가진 동양인에서 “고혈압”과 ‘당뇨’前단계에 놓일 경우 심방세동을 비롯한 뇌경색 등 심혈관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심방세동 발병에 있어 고혈압과 당뇨병 전(前)단계에 위험성을 대규모 역학조사로 재차 규명하는 한편, 서양인과 다른 동양인의 특징을 세계적으로 규명하였으며,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인용지수 IF 20.2) 최근 호에 비중있게 게재되었다. 연구팀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검진자 41만여명을 분석했으며, 이중 심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한 20세 이상 검진자 22만7,102명의 심방세동 발병유무를 2013년까지 추적, 조사했다. 이러한 임상 결과는 이미 미국 부정맥학회 (Heart Rhythm Society; HRS)와 유럽 부정맥 학회 (European Heart Rhythm Society; EHRA 2017) 에서도 구연 발표를 통해 임상적 의미를 입증한 바 있으며, 이번에 논문으로 출간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지난달 미국 심장학회에서 고혈압의 기준을 130 / 80mmHg 으로 낮추자는 움직임이 있어, 본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용된 고혈압 전단계의 기준은 수축기 120~139 mmHg, 이완기 80~89mmHg (정상단계 수축기 120mmHg 미만, 이완기 80mmHg미만), 당뇨 전단계는 우리 몸이 포도당을 적절히 처리하기 못하는 ‘공복혈당장애’ 기준인 100~125mg/dl(정상치 100mg/dl미만)을 인용했다. 연구팀은 공복혈당장애가 발병할 경우 정상체형군에서도 심박세동 발병 위험율이 16%나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고혈압 전단계와 공복혈당장애를 같이 동반할 경우 심방세동 발병율은 무려 27%나 상승하는 것을 찾아냈다.

산부인과학교실, 주웅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주웅 이대목동병원 공공의료사업센터장(산부인과 교수)이 12월 1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제4회 공공의료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주웅 센터장은 지난 4년간 이대목동병원 공공의료사업센터를 이끌면서 전국 39개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임상 실무역량을 높임으로써 공공부문 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민간 의료기관에선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웅 교수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이 혼재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서 민간 병원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의미 있다”면서 “의료인의 책무를 통한 국민 건강 향상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의 설립 이념과도 상통해 앞으로도 공공부문과의 양방향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과학교실, 김선종 교수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선종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이 12월 13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개최된 2017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국가 보건 의료기술 진흥에 앞장선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동창회 소식

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송년회



쪽부터 선배님들부터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고, 올해의 이화인 기인 37회 선배님들이 대거 입장하면서 올해 송년회는 총 236명 최다참석자로 성황을 이루는 행사가 되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연구자와 보건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보건의료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이다. 김선종 교수는 구강악안면외과와 치과 보철을 복수 전공하면서 여러 약물 복용과 관련된 턱뼈 과사 치료 분야를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국제협력실장을 맡아 몽골과의 해외 원격의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우리나라 선진 의료를 국제적으로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예방의학교실 박혜숙 교수 퇴원손상심층조사 유공자 질병관리본부장 표창



예방의학교실 박혜숙 교수가 2017년 12월 13일 퇴원손상심층조사 유공자 질병관리본부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의료기관 퇴원환자 의 무기록 조사를 통해 손상 발생 규모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2005년 수립되었으며, 지역별 손상통계 산출을 위하여 표본병원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박혜숙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손상 예방 및 관리의 자문위원으로서 퇴원손상심층조사 조사감시체계의 구축과 역학 자료 산출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아동 안전지표를 생산하고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에 손상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였으며, 손상예방과 사회 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커서 이에 질병관리본부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행사알림

1. White Coat Ceremony

- 기간: 2018. 4. 13(금) 17:00
- 장소: 김옥길홀

3. 졸업 50주년(17회 졸업생) 모교방문의날

- 일시: 2018. 5. 24(목) 12:00
- 장소: 본교 케세이호

2.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체육대회

- 기간: 2018. 5. 19(토) 13:00
- 장소: 본교 체육관 홀II

4. 졸업 30주년(37회 졸업생) 모교방문의날

- 일시: 2018. 5. 29(화) 19:00
- 장소: 병원 대회의실

동창 행사

1. 봄 걷기 대회

- 일정 : 2018. 4. 15(일)

2. 골프 대회

- 일정 : 2018. 6. 3(일)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변성완(정보관리부장)

편집위원 김윤진(정보관리부 차장), 김범산(정보관리부 차장), 이정애(의과대학 행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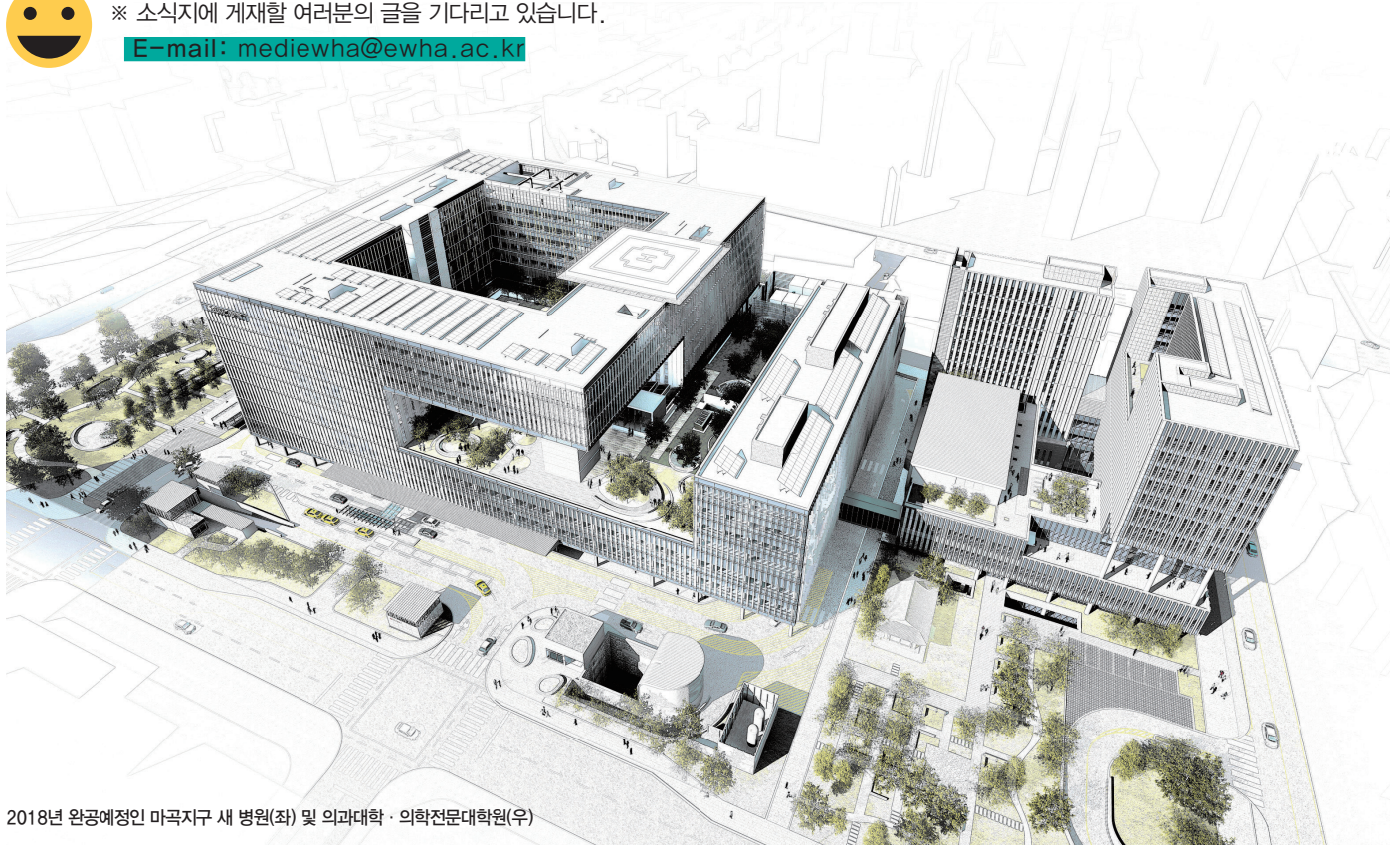
학생기자단 고혜진, 박조은, 방윤지, 최은영

디자인·인쇄 정디자인



※ 소식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2018년 완공예정인 마곡지구 새 병원(좌) 및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우)